

## ▶ 가족자원경영

## 은퇴 후 노후생활 준비정도에 대한 인식과 관련변수에 관한 연구

-30·40대 직장인을 중심으로-

부 말 속\* (제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박사과정)

김 혜 연 (제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2026년 초고령 사회(노인인구 20%이상)로 예측될 정도의 급속한 고령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빈곤, 부양, 소외감 등의 노인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노후생활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며, 경제적 준비나 재취업준비 등 생활의 한 영역만을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전체 생활영역에 대한 노후생활준비의 중요성이 간과되어 온 경향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은퇴를 준비하기 시작해야 하는 30, 4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은퇴 후 노후생활자금, 여가생활, 거주 및 부양자문제, 그리고 활동 등 여러 생활영역에 대해 어느 정도로 준비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인식에 차이를 가져오는 변수 및 변수들의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써 노후생활계획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개인관련변수(성별, 연령, 교육수준, 건강), 가계관련변수(자녀수, 막내자녀연령, 주택소유유형, 월평균생활비, 경제수준에 대한 인식), 그리고 직장관련변수(직업, 직업소득, 직업만족도, 직업전망)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30, 40대의 직장인으로 최종 표본은 453명이었으며,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는 SPSS Win12.0Program을 이용하여 분산분석(one-way ANOVA analysis) 및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은 은퇴 후 거주 및 부양자 문제에 대해 가장 높게 준비가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3.19점), 전체적으로 은퇴 후 노후생활 준비정도가 보통 수준에 못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어(2.90) 준비정도가 낮은 수준이었다.

둘째, 조사대상자들의 은퇴 후 노후생활 준비정도에 대한 인식은 전체적으로 볼 때 개인관련변수와 가계관련변수보다는 직장관련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직업소득이 높고, 직장만족도가 높으며, 직장전망이 좋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노후생활자금, 여가생활, 거주 및 부양자문제, 활동, 그리고 전체의 은퇴 후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정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노후생활 준비정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와 달리 독립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현재의 경제수준이 영향력있는 변수였으며, 가계관련변수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개인관련변수에서는 대체로 연령이 영향력이 있는 변수로 나타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가생활, 거주 및 부양자문제, 활동 그리고 전체 은퇴 후 노후생활 준비정도가 높다고 인식하였다. 직장관련변수에서는 직업전망이 좋을수록 노후생활자금 및 여가생활에 대한 노후생활준비정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고,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인 변수들이 많지 않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무엇보다 직장인의 은퇴 후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가 시급하며, 개인과 가정상황에 따라 다양한 노후생활계획의 필요성을 시사해주고 있다.